



2022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 소식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VOL. 07  
ISSN 2508-825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 0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04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04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04
제4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05
제8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06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08
포스터세션	10

## 0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12

2022년 분과위원회 활동	12
분과위원회 공동 연구주제 결과보고서	15

## 0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20

202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20
2022 협력교육프로그램	26
2022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	28
디지털컬렉션 구축사업	29
담당자 워크숍	31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	31
공동 학술세미나	31

## 04. 회원기관 활동 소식 32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32
기획재정부 도서관	3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정보도서관	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실	35
한국수자원공사 정보문화센터	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	37

## 05. 숫자로 보는 정책정보서비스 38

## 06.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42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김일환입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2022년 사업 성과를 담은 연보이자 협의회 회원기관의 한해 소식들을 모은 「활동 소식지」를 통해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2023년 계묘년, 올 한해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에도 협의회는 정책정보 협력망 활성화와 정책 전문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1만여 책(점)이 넘는 희귀 정책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를 주제로 정책 기획 공동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정책 전문가들의 강의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협력사업 이외에도 실무자 연구형 분과위원회와 전국도서관대회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정기총회 행사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회원기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 워크숍, 협력 유공자 포상, 홍보자료 제작,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협의회와 회원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룬 성과들이 정책정보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가속화되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딥러닝 등 고도화된 첨단 기술의 발달은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책 전문도서관계는 모기관 생산자원의 효

율적 보존과 정교한 데이터 분석, 고도의 지능화된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도서관계는 중요자료의 디지털화, 선별 아카이빙,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디지털 큐레이션,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마이닝 등 최신 트렌드를 업무에 적재적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도서관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정책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도서관 가족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책 전문도서관계의 고민과 노력의 중심에서 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협의회에서 회원기관들의 고민과 담론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네트워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사서연대감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장의 현안들을 직접 수렴하고, 회원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며, 협력망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립중앙(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책정보 협력망을 통한 정책지식자원의 가치 확산과 공동 활용, 정책 전문도서관의 상호 협력 강화와 인프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기관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 국가정책 정보협의회란? (NAPI)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로 2015년 11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현재 260개관(2022.12.)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수립 담당 공무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세종)도서관과 협약(MOU)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에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가정책 정보협의회 연혁

\* 협력사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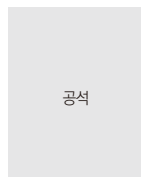




## 제4기 국가정책 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임기 2021년 9월 30일~  
2023년 9월

회장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부회장



환경부  
최정순 서기관

감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원석 탐장

당연직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김수정 과장



국립세종도서관  
박성의 과장

당연직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경은 사무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오정훈 책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현선 차장



경기대학교  
최성밀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배경재 교수

2022년에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4기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졌다.

운영회의는 총 2회 개최되었는데, 1차 회의(6월)는 정기총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2차 회의(12월)는 2023년 협의회 주요사업에 대해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행사 관련 검토,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 등 협의회의 내실있는 사업 운영과 협력망 구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4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9월까지이며, 제9회 정기총회에서 제5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 제8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세종도서관)는 「제8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2022년 11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간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의 주제는 ‘새로운 미래, 도서관이 새 지평을 열다’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회원기관 담당자와 도서관 관계자 109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의 성과가 공유되었고, 신규사업인 네트워크 간담회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었다. 총회에 이어 정책정보자원의 공유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협력 유공자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총 4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는데, 단체표창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문화재청이, 개인표창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상욱 사서가 수상하였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전망과 도서관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강연과 담론이 펼쳐졌다. 주요 강연은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1 총회 개회(김일한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 2 행사장 전경
- 3 특별강연(동덕여자대학교 배경재 교수)
- 4 포스터세션
- 5 행사 포스터
- 6 총회 안전 의결(최정순 부회장)

의 “변화의 시대, 미래 도서관과 사서의 핵심가치”, ▲최성수 메타컴퓨팅 대표이사의 “디지털혁명이 이끄는 미래 도서관의 역할: 문헌정보 속 경계(boundary)와 관계(relationship) 찾기”, ▲유은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의 “개인 맞춤형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의 “팬데믹 이후, 트렌드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이다. 최근 도서관계의 관심 높은 주제의 수준 높은 강연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2022년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의 성과발표 시간도 편성되었다. ▲김현영 국립세종도서관 주무관의 “정책정보 전문역량 강화분과 추진성과”, ▲임난주 환경부 주무관의 “국제기구 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가 발표되었다. 당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참한 ▲이은희 국악방송 미디어사업부 차장의 “국내외 방송 영상 아카이브의 공공서비스 사례”는 자료집을 통해 공유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8회 정기총회를 통해 협의회 회원기관들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서관계의 최신정보와 담론들이 활발히 교류되고, 사서들의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의 효과를 얻었다.



##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자 단체사진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들의 사기진작 및 정책정보서비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매년 협력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문화재청 등 단체 3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상욱 사서가 수상하였다. 이들 수상자들은 기관 소장자료의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화 및 대국민서비스, 정책정보종합목록,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정책기관 순회대출 등 정책정보서비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책정보의 공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협력 유공자에 선정되었다. 한편, 2022년에는 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선정하여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특별상(국립중앙도서관장표창)을 수여하였는데, 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국악방송 이은희 차장이 수상하였다.

### 표창자 수상소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 모든 기관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에 협력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진행하였고,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이라는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전시회는 우리나라 복지 여정 100년을 각종 사료와 설명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오늘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보건복지 정책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복지사회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기관은 받은 것이 많은 한해였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많은 기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더 많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책정보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도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2015년부터 정책정보협력망 회원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정보의 공유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 성과물인 보건의료 R&D 정책 연구보고서 서지데이터를 공유하여 정책정보종합목록 구축에 참여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국가 보건의과학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해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등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병관리청 소속원의 연구 지원과 업무 역량을 보

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생명과학분야 전문도서관으로서 일반 단행본의 구입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의 아쉬움이 있는데,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도서는 의과학지식센터에서 이용률이 높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22년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로서 장관표창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물의 국가자원화와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정보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청 자료실은 문화재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전문도서관으로 문화재 지정 수리 발굴 보고서와 문화재대관 등 전문도서를 수집 보존하고 발간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하고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 선진사례 해외연수 등에 참여하여 소규모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통해 늘 아쉬움으로 남았던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키고 누리는 일에 기여하는 문화유산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통해 늘 아쉬움으로 남았던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키고 누리는 일에 기여하는 문화유산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박상욱 사서

사서로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서관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도서관 사서로 현장에서 신규 서비스의 구축과 전문가 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던 때에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새로운 방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협의회 회원 기관으로 순회 문고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나 우리 관보다 더 열악한 곳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찾아가는 정책 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해 기관 내에서 도서관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력, 예산 등 자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던 강연을 유지하여, 더 많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외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시키고, 기관 발간물의 성과 확산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담당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와 '디지털 서고'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기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당연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력 유공이라며 장관 표창이라는 큰 상까지 주셔서 사서로서 더 없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협의회와 공유하며 도서관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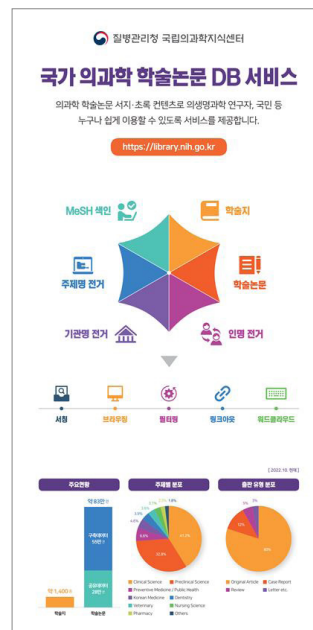
정기총회에서는 회원기관의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포스터세션을 운영하였다.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였는데,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과 도서관의 특화서비스 등을 다채로운 디자인의 포스터로 제작하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  
숲속에서 책을 보고, 책을 듣다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국가 의과학 학술논문 DB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세상의 지식을 물놓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한국의료기술연구원  
한국의료기술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사업 소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KSLA

## 참여기관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  
「숲속의 도서관」 서비스,  
포스터 세션 참가!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서 지난 11.10.(목)~11.11.(금)까지 「제8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은 운영중인 “숲속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포스터세션에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20년부터 시작한 서비스는 매년 40여 권의 콘

텐츠를 선정하여 추가하고 있고, 청사 내 주요 산책로 24곳에서 사인보드(QR코드 접속)를 통해 151권의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포스터 전시와 함께 이해를 돕기위해 소개영상을 제작하여 안내하였다.  
※ 오디오북 6배, 전자책 2배 이상 이용률 상승!

## 02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 2022년 분과위원회 활동

#### 들어가며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세종)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정책정보 협력망으로, 정책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며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협의회에서는 협력망을 통한 정책정보 공동활용 외에도 회원기관과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전문도서관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사업의 주관이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협의회는 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업과 일원화되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기존의 협의회 협력사업이 회원기관의 정책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면, 이번에는 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본 것이다.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된 실무자 연구형 분과위원회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이런 구상 중 하나이다. 이 지면에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분과위원회 추진경과

분과위원회 설치의 관련 근거는 협의회 회칙 제25조제1항에 있다. 회칙에 의하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실무자 연구형 분과위원회 추진을 결정하였다.

분과위원회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은 우선 정책 유관기관 사서들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 제공에 있다.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지방 이전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가지 제한 요건들로 인해 도서관 담당자 간 교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분과위원회를 통해 회원기관 담당자들의 소규모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교류의 장(場)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책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운영 모형이 실무자의 경험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였다. 대개 도서관의 관중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양태가 달라진다. 회원기관의 경우 도서관은 모기관의 부속 조직이고, 이용자가 공직자와 연구자이며 주로 정책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을 가진 정책 전문도서관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무자의 경험으로 개발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담당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사서의 역량 개발은 학업이나 교육 연수기관 등을 통해 개발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거나 주어진 커리큘럼을 수강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실무자들의 T.F.T 형태의 모임이므로 다양한 경험 공유와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통해 참가 사서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분과위원회 참여기관 및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소선(위원장)

한국환경연구원 김윤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인에

대전세종연구원 이영미

(재)국악방송 이은희(간사)

환경부 임난주

2022년 분과위원회의 첫 구성에 앞서, 전년도인 2021년 12월에 제4기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 운영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분과위원회 설치가 의결되었고, 2022년 2월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을 회원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정부, 공공, 국책 연구기관 담당자 6인으로 구성된 '정책정보 전문역량 강화분과'가 결성되었다.



## 정책정보 전문역량 강화분과 활동

‘정책정보 전문역량 강화분과’는 연구형 분과모임을 통한 정책기관 담당자의 정책정보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 범위와 과업은 분과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분과의 주된 추진방향은 도서관 현안 공유 및 개선 방안 논의이며 국내외 정책전문서비스 최근 동향 조사도 과업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분과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대면모임 위주로 진행하고, 코로나19 등 불가피하게 대면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모임에는 다과 등의 회의 진행경비를 비롯하여 도서 구입비, 전문가 강의, 체험 학습비 등을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교육시간 인정, 연말 관장 표창 추천, 유공자 포상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인센티브로 하였다.

분과회의는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개최되었다. 첫 회의였던 3월에는 위원회 발족 및 Kick off 회의를 진행하였고, 분과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국립세종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세종시 소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소 변동으로 인한 번거로움은 있었으나, 각 정책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환경을 자연스럽게 탐방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1주제)** 공동 연구주제 ※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

- 디지털시대 전문도서관의 장서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제2주제)** 개별 연구주제 ※ 제8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

- 국제기구 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
- 국내외 방송 영상 아카이브의 공공서비스 사례
- 국내 도서관계 정보서비스 동향 및 사례

분과는 총 2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과업을 수행했는데, 제1주제는 공동 연구주제로 제2주제는 각자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개별과업으로 진행하였다. 공동 연구주제인 ‘디지털시대 전문도서관의 장서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은 4월부터 시작하여 총 4회에 걸쳐 진행한 주제이다. 지식정보 생태계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문도서관은 환경변화에 직면했고, 이용자의 요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털시대 전문도서관이 모기관의 지식정보센터이자 인문학적 소양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가장 기본업무인 장서관리부터 짚어나가기로 하였다. 회의는 분야별로 과업을 분담하여 연구하고,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서관리에 대한 기본이론부터 실무자의 고민과 현안들을 모아보고,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장서관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해당 주제는 현재 전문도서관계의 현안에 대한 주제여서 분과위원들의 집중도가 높았고,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실무자들의 생각들이 다채롭게 공유되었다. 따라서 본 지면에서는 분과 제1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하고자 한다.<sup>1)</sup>

제2주제는 개별 연구과제로 각 개인이 주제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국제기구 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로는 IMF(국제통화기금) eLibrary, GCF(녹색기후기금) Open Data Library,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Library System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방송 영상 아카이브의 공공서비스 사례’는 국외 사례로 미국 AAPB(미국공공방송 아카이브), 프랑스 INA(국립시청각기구), 일본 NHK(일본공영방송)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 사례로 KBS(한국방송공사),

1 제1주제 결과보고서는 15쪽에 수록되어 있다.

MBC(문화방송), KTV(국민방송), 국악방송의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상기 2건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제8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자료집<sup>2)</sup>'에 수록되어 있다. '국내 도서관계 정보서비스 동향 및 사례'는 아쉽게도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 회원동정과 국공립대학교서관보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서비스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통계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변별력있는 이용행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도서관들의 노력들을 조사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 맺음말

2022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전문도서관 현장의 현안과 사서의 고민이 활발히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도서관 관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업무 현안에 대한 고민들과 담론들이 분과를 통해 심도있게 공유되었다. 둘째,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소속 모기관의 유형과 경력에 차이가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분과를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실무자 중심의 자발적 연구분위기가 조성되고,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론에 국한된 결과물이 아닌 실무자의 경험이 반영된 제언으로 결과물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네트워크 결속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정기적인 모임 활동으로 분과위원 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서 연결감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처럼 2022년 시범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분과위원회는 2023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를 통한 담당자들의 소규모 네트워크 모임이 올해에도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소소하지만 내실있는 활동들이 꾸준히 모이고 축적되면,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기계발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전문사서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정보 협력망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1 분과회의(한국환경연구원)
- 2 분과회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 (강소선 위원장)
- 4 제8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발표 (임난주 주무관)

2 제8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자료집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다. (<https://www.nl.go.kr/NL/contents/N50707000000.do>)

## 분과위원회 공동 연구주제 결과보고서

# 디지털시대 전문도서관의 장서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배경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시대가 화두인 요즘, 지식정보의 보고인 도서관계에도 많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의 핵심 자산이자 구성요소인 장서는 전자자료의 증가와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 다양한 자료유형의 확산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공간과 인력, 예산 등 도서관 운영에 있어 제한요건이 많은 전문도서관에서는 전통적인 장서개발과 장서관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내외부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의 장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성문화된 장서개발 및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장서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도서관이 직면한 문제

#### 1. 장서 범위의 변화

디지털자료의 증가와 함께 이용자의 자료 이용행태가 크게 변화하였고, 자료구입 예산에서도 인쇄자료 대비 전자자료 구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장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전자자료는 장서 구성에서 제외되고 있어, 도서관의 장서 구성은 계속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가 이용하는 많은 자료가 디지털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장서의 구성과 범위에 디지털 자원을 포함하는 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 2. 디지털자료와 중복인 인쇄자료의 입수 및 등록 기준

다수의 인쇄자료가 디지털자료로도 이용 가능함에 따라 인쇄자료의 이용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는 일이 중복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쇄자료의 구입, 등록, 관리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저널은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와 전자저널, 학술DB 구독 확대에 의해 대부분 디지털로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단행본의 경우에도 접근의 편의성, 이용의 효율성, 구입의 간편성 등으로 인해 인쇄자료 대신 전자책으로 구입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도서관의 물리적 장서의 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에 있어 인쇄자료 관리에 대한 고민은 1) 자료의 등록 기준과 범위 2) 등록자료의 보존과 폐기 3) 장서운영 방향 등을 어떤 전략과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 3. 구독 전자자료의 관리체계 미흡

구독 전자정보는 대부분 소장개념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이용이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자료는 소유가 아닌 접근·이용 라이선스만을 부여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장서 개발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독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기 구독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 구독 전자자료를 장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와 더불어 관리체계와 시스템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다.

#### 4. 디지털자료의 아카이빙과 장서로서의 관리 방안 미흡

디지털자료의 구성과 유지, 저작권 등 장서로서의 관리 방안을 담은 성문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 정보자원을 어느 수준까지 개발하고 수집하며, 수집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서관 장서로서의 전자자원이 보급·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자원개발 업무의 변화와 함께 기존 인쇄자료 위주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해외 도서관의 경우 성문화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자자원을 인터넷 자원, 오프라인 전자자원, 전자저널 등으로 세분하여 개발정책을 규정하거나 인쇄학술지 선정기준과 함께 전자자원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시대 전문도서관의 장서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sup>1</sup>

#### 1) 도서관의 설립 목적, 도서관(모기관)의 사명을 파악하고 명시한다.

- ① 장서관리개발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도서관의 설립 목적, 도서관(모기관)의 사명과 내·외부적 기능 및 목표를 명시한다.
- ② 설립 목적 및 사명을 바탕으로 도서관 장서관리개발 및 관리정책의 목표를 기술하여 주제별 수집범위의 근거를 마련한다.
- ③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사명의 특징에 따라 장서관리정책의 개정 주기를 명시한다.

#### [참고]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사명)** 1. 전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부록 참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금융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언론기관, 통신기관, 기타 기관에 설치된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기술정보실, 정보센터 등으로서 당해 기관이나 법인의 설립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고 구성원의 조사,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 또는 법인 내의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 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업무수행에 적합한 모든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한편, 품질관리 및 혁신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한다. 4. 전문도서관은 조직의 미래발전과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직의 비전, 목적과 목표, 수행계획을 명시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목적)** 1. 전문도서관은 모체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소장자료와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2.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이나 법인의 현재 및 미래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여 제공한다. 3. 전문도서관은 신착정보를 비평기사, 초록, 목차 등의 형식으로 분석, 가공하여 구성원 또는 대중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 2) 도서관의 장서관리개발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이용자 커뮤니티의 특징 및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 ① 장서관리개발과 관리는 정보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문도서관의 장서관리개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sup>1</sup> 제언 중 일부는 분과위원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강의한 구본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의 강의 내용을 참조하고 활용하였다.

- ② 장서관발과 관리를 위해 도서관의 주 이용자 커뮤니티 현황에 대한 파악, 도서관의 실제 및 잠재적 이용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 분석과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주기적인 이용자 분석을 위해 대출 자료 및 이용률 모니터링, 정기적 설문조사, 참고 정보 기록 관리, 구입 및 비치 희망 자료 통계 등을 활용한다.
- ④ 이용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분 기준과 함께 각 집단의 특징을 명시하고 대상 집단을 고려한 정보요구, 자료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기술한다.
- ⑤ 이용자 분석을 토대로 도서관 장서의 범위와 개발 및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 3)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 현황을 토대로 현재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장서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 ① 도서관의 사명과 이용자 그룹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 ② 장서의 현황분석은 보유한 장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실시하며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점검의 방법과 시기(주기)를 명시한다.
- ③ 장서 분석은 장서의 최신성 유지, 주제(범위), 심도, 양, 형태, 유형, 이용도(대출빈도, 검색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디지털자료의 경우 안정성 및 호환성 등 자료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분석을 실시한다.
- ④ 장서 분석은 일관된 기준으로 실시하여 누적 데이터를 만들어 관리하며, 도서관의 현재 장서 구성의 보완 계획, 수요 예측, 장서 수집범위 및 기본방침 수립에 그 결과를 활용한다.

### 4) 도서관의 장서 개발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한 요인을 파악하고 보완 계획을 마련하여 기술한다.

- ① 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재정적 한계를 함께 기술하여 장서 개발의 제한 요인을 명시한다.
- ② Web DB, 전자저널 등 구독형식의 전자자료의 경우 자료구입 비중이 크지만 라이선스 범위, 관리방식의 복잡성 등 장서로서의 지위 확보와 아카이빙에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기술한다.
- ③ 전문도서관의 공간 및 인력 부족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장서 보존 및 관리에 한계점이 있으며, 디지털자료를 위한 서버 자원의 할당이나 자료 백업 등 가상 공간의 확보에서도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 ④ 도서관의 예산, 인력, 공간의 제한점으로 인해 장서의 구성과 수집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 ⑤ 도서관이 처한 제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제도, 협력 기관과의 자료 이용 협약,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활용 등의 자원 협력에의 참여 정도를 기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 5) 물리적 구성요소로서의 장서와 도서관 공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 ① 디지털자료의 증가와 인쇄자료의 감소 등 장서 구성의 변화 속에서도 장서의 보관장소뿐만 아니라 자료탐색 및 연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② 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한 공간적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균형적 비율을 고려하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존재 및 역할 등에 대해 기술한다.

**[참고]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2. 전문도서관의 공간은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으로 나누어 계획하되, 공간요소별 적정 면적은 <표 3>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요소	배분비율(%)	
	복합건물	독립건물
자료공간	57	50
이용자공간	20	20
직원공간	10	10
공유공간	13	20

3. 전문도서관의 순자료공간은 서고의 연면적의 6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전문도서관의 자료 및 이용자공간에는 직접조명을 설치하고, 업무수행 및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공간에는 중간조명을 선택하되 테이블 또는 좌석당 부분조명으로 보광하는 방식이, 공유공간에는 간접조명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료 및 이용자공간 중에서 개가제 서고의 조도는 300~500룩스, 폐가제 서고는 100~200룩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전문도서관의 모든 공간은 표준 온습도의 범위(온도 17~23℃, 습도 40~60%)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전문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FAX, 스캐너, VTR, 빔 프로젝터, 마이크로필름 리더 등의 정보화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 6) 전자자료와 디지털자료에 대해 장서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 ① 인터넷 정보자원과 전자자료를 장서 구성에 포함하여 장서관리 영역을 확장하고 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수집 및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 ② 전자자료는 유형별로 수집 범위(인쇄본의 복본자료로 전자책 구입 또는 대체재의 용도로 전자책 구입), 종류, 선정 기준, 라이선스 등을 고려하여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자료 이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도 함께 기술한다.(추가 장비가 요구된다면 선정을 지양할 수 있다 등)
- ③ 인터넷 자원은 홈페이지 링크형, 외주공급형, 협동개발형, 가상서고 구축형 등(윤희윤, 장서관리론, 2020, 359.) 기관에 맞는 장서관리 모형을 정해 해당 모형과 필요 주제 분야에 맞는 선택 요소를 마련하고 아카이빙 및 보존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 ④ 전자저널은 이용자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제 내용의 적합성(연구 및 업무수행상 필요성, 선별적 구독 가능 여부), 전자적 접근의 편의성(기관 인증 방식, 검색, 주제분류, 원문의 전자형태), 이용률 대비 가격의 적절성 등 도서관 상황에 맞게 선정기준을 수립한다.

**[참고]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5. 전문도서관은 디지털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실물보존 및 원격접근을 동시에 강화하여야 한다.

디지털 계획에 포함될 자료의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도는 낮지만 원형유지가 시급한 특수자료(고서, 귀중서, 희귀서 등) 2) 자연적 열화(산화) 및 인위적인 파손으로 실물보존이 불가능한 도서와 잡지 3) 기존의 마이크로자료(특히 35mm 필름과 피시) 4)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적은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각종 보고서, 통계데이터 등 5) 웹사이트의 공개자료 중에서 심사제가 있는 전자잡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연구단체의 프로젝트나 보고서, 통계자료 등 6) 실물자료의 디지털 버전인 전자잡지, 전자도서, CD-ROM, 서지DB, 웹DB, 온라인 백과사전 등의 참고자료 등



## 7)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고려하여 각 도서관에 부합하는 장서 평가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① 변화하는 환경과 이용자 정보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주기적인 장서평가를 실시하며 장서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 ② 장서평가는 이용 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 이용자의 요구 파악, 도서관 시스템에서 생산된 통계 데이터 활용 등 객관적 척도에 의해 실시한다.
- ③ 장서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용 강도가 높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약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장서를 재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④ 장서폐기 기준은 도서관법, 한국도서관기준 등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각 도서관의 환경에 맞게 수립하며 장서 개발정책 및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다.
- ⑤ 장서평가의 주기, 장서평가 기준(시의성, 장서 비율, 이용률 등), 평가심사 절차, 폐기 지침 등에 대해 실행이 가능한 세부 지침을 수립한다.

## 8) 미래지향적 목표와 도서관의 업무 다변화를 위하여 장서개발과 관리의 범위를 확장한다.

- ① (모)기관 및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장서개발과 관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장서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 ② 연구성과물, 연구데이터 관리를 장서관리에 포함하고 기관 리포지터리 등 성과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적극 고려한다.

분과위원  
소감

## G 국악방송

이은희 차장

지난 2017년 부푼 마음으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했지만,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컬렉션 구축사업,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순회대출 등 어느 사업에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한 채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정책전문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형 연구모임인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소식에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렇게 1년 동안 타 기관 전문 사서들과의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정책정보 전문사서로서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

습니다.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타 전문도서관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과 사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을 뿐인데, 표창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이번 분과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국악방송 자료실에도 생기가 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특별상 수상(국립중앙도서관장표창)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인애 주무관

저는 2021년 9월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구원 도서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껴 전문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마침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장서관리란 주제로 관련 자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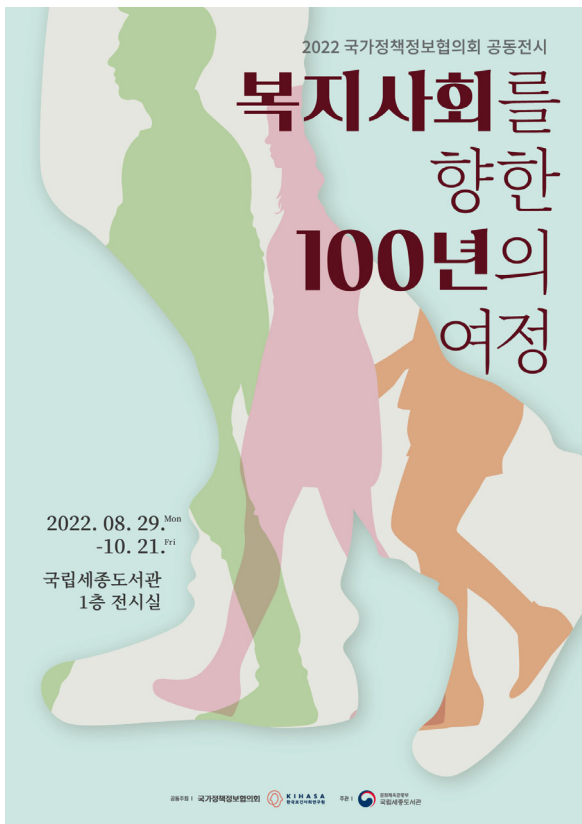
찾아보고 요약 정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하며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활동을 통해 조금씩 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며 분과위원회 활동만이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들을 뵈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도서관을 살펴볼 수 있는 경험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 202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공동전시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을 2022년 8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100여 년의 역사를 조망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정책 전시이다. 총 2,800여 명이 관람한 본 전시는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 구성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한 보건복지

전시에서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복지제도의 발전사를 연대기순으로 구성하였다. 시대를 반영한 가족계획 사업, 환경 개선 정책, 연령별 복지의 개선, 경제와 맞물린 정책 등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의 여정이 전시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정책 연구자들의 풍부한 설명과 함께 사진자료, 실물보고서와 동영상들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분야별 주요 보건복지 정책

현재 우리사회와 구성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소개하였다. 건강 분야의 '아파도 걱정하지 말아요', 소득분야의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해요', 사회서비스 분야의 '돌봄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인구와 가족 분야의 '혼자여도 여럿이어도 좋아요'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각 분야별로 일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과 개념에 대해 도표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수준과 환경변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도 전시하였다.



## 다양한 복지정책 체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 전시의 백미였다. 장애인 보조기구, 노인돌봄 시인형, 전동기립형 휠체어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돌봄의 기구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70~80년대 가족계획 포스터를 활용한 우리가족의 표어 완성, 복지 주요상식에 대한 퀴즈풀이, 미래정책 제안 코너, 인터랙티브 디지털 체험활동 코너를 마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복지제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온라인으로 만나는 전시

대면 관람이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장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재현한 VR전시장을 제작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없이 누구나 실감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의 전시컬렉션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디지털컬렉션 > 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

또한 전시의 각 섹션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는 해설영상을 국립세종도서관 유튜브에 탑재하여 전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왔다.

▶ 유튜브 > 국립세종도서관 채널 ▶ YouTube 국립세종도서관 채널(<https://www.youtube.com/@NLKSejong>)

##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 전시 배치도



해설영상



전시컬렉션

###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 개화기 민간복지 활동의 시작
- 일제의 강제 병합과 식민통치



### 1960년대

- 산업화와 사회보장의 도입
- 인구 증가 역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



### 1970년대

- 무의촌 해소를 위한 노력
- 경제성장 시기의 부분적인 연금제도 도입
- 남아선호 사상 대응



### 대한민국정부 수립 ~1950년대

- 전쟁과 빈곤으로 해외원조에 기댈 수 밖에 없던 시기
- 무의촌 노인들 위한 보호 시작



### 1990년대

- 영유아 보육의 확대
- 노인복지의 양적 확대
- IMF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전개
- 건강보험 통합

### 2000년대

- 고령화와 노인복지의 발전
-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 보장
- 저출생 현상에 대응
- 양육지원제도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보장의 확충



### 보·사·연 상영관

###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보건복지

- "아파도 걱정하지 말아요"
-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해요"
- "돌봄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 "혼자여도 여럿이여도 좋아요"

### 숫자로 비교해 보는 보건복지

### 1980년대

- 한 자녀 갖기 운동, 가족계획 사업의 절정
-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장애인 등복지의 시행과 확대
- 노인복지제도의 시작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보장의 형성



### 체험 프로그램

- 2022년 오늘의 가족
- 잠깐 퀴즈
- 미래정책은 우리가 만들어요.
- 함께하는 소중한 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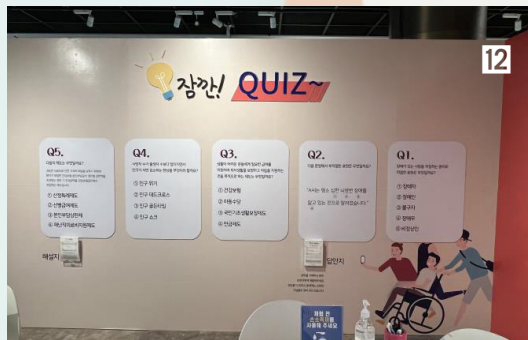




- 1 전시를 열며
- 2 [체험기구] AI 돌봄인형
- 3 [체험기구] 장애인 보조기구
- 4 전시실 입구
- 5 보건복지 100년 영상 상영
- 6 보·사·연 상영관
- 7 [섹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
- 8 [섹션] 숫자로 보는 보건복지
- 9 [섹션] 우리나라 보건복지 100년사
- 10 [체험활동] 미래정책은 우리가 만들어요
- 11 [체험활동] 2022년 오늘의 가족
- 12 [체험활동] 잠깐퀴즈
- 13 [체험활동] 인터랙티브 체험
-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개







## 개막행사

전시의 개막일이자 국립세종도서관의 재개관일인 2022년 8월 29일(월)에 전시 개막행사를 개최하였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민석 국립세종도서관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공동전시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을 염원하였다.

“

이번 전시는 지난 100여 년의  
복지정책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 국민의 복지 인식에 기반하여  
미래의 복지 방향성을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인사말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인사말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축사]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

“

인간다운 삶을 견인하는  
복지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이  
널리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



개막식 전경





테이프커팅



내빈 전시 관람

## 참여기관 소감



이수연 선임전문원

보건복지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기대하는 행복한 삶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이 지난 50여 년 동안 쌓아 이룬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 공동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기획 초반에 전시의 방향과 범위가 ‘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사’에서 ‘우리나라 복지사회 100년의 역사’로 확대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각종 전시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최상의 콘텐츠를 선별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전시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정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자 노력했으며, 체험 공간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과거에 비추어 현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미래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체험 활동에 참여해 주신 관람객분들, 코로나19 상황에도 성공적인 전시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전시회 준비 TFT 위원님들과 국립세종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귀중한 전시물품을 제공해주신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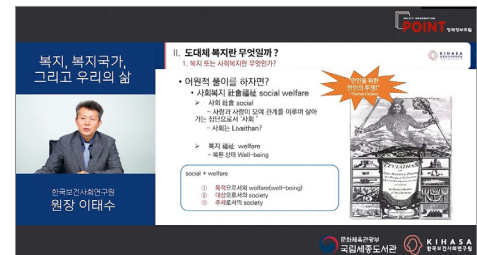
## 2022 협력교육프로그램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책전문가 강연프로그램인 '2022 협력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 협력교육프로그램은 회원기관의 정책전문가가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현안과 동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2022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7월)·국토연구원(12월)과 함께 진행하였다. 강연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정책정보POINT 채널에서 재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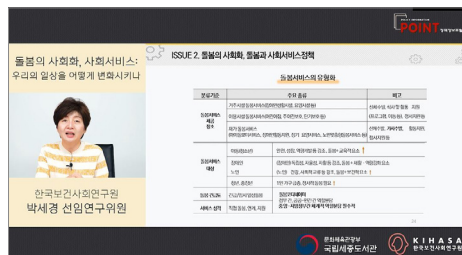
### <1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우리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돌봄서비스,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정책 전문가들이 특별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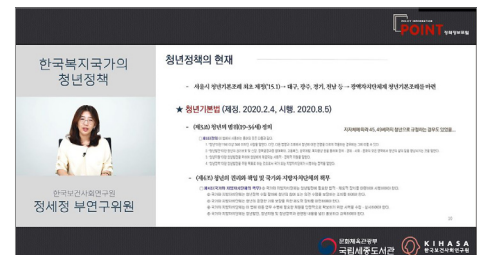
##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 행복한 시민의 삶



1회 7. 13.(수) 복지, 복지국가, 그리고 우리의 삶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회 7. 20.(수)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 :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박세경 선임연구위원)



3회 7. 27.(수) 한국복지국가의 청년정책  
(정세정 부연구위원)

참여기관  
소감



**KRIHS**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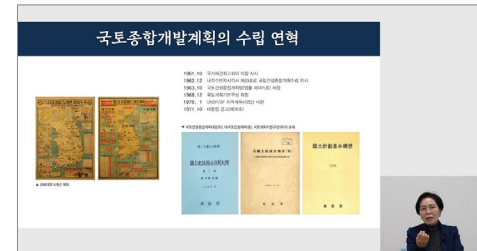
이세별 3급 행정원

국토연구원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협력사업으로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정책 이슈 및 동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연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 정책에 대한 연구가 국토연구원의 주된 연구 중 하나이기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 국토, 지역, 부동산 어떻게 될까?”라는 교육명으로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오후 2시에 3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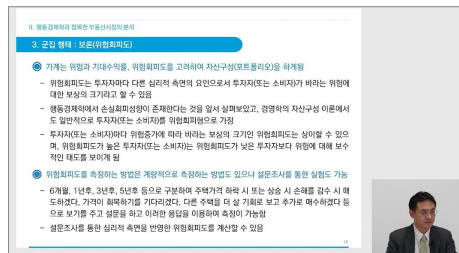
## 〈2차 국토연구원〉

제1차부터 제5차에 이르기까지 국토종합계획의 역사, 부동산시장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행동경제학,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징분석 등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전문가들이 특별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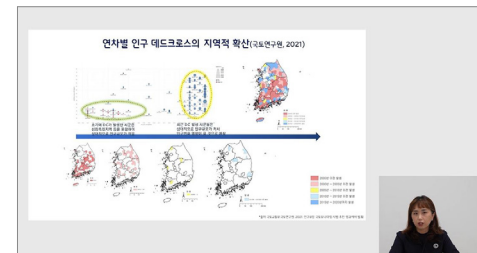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토, 지역, 부동산 어떻게 될까?



1회 11. 30.(수) 국토종합계획 50년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2회 12. 7.(수) 부동산과 행동경제학  
(박천규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소장)



3회 12. 14.(수) 데이터, 지역을 말하다  
(이영주 연구위원)

1회차에는 국토종합계획 50주년을 기념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는 국토종합계획 50년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주제의 영상은 조회수 2,929회를 기록하여 국민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회차는 부동산과 행동경제학이라는 주제로 행동경제학을 접목하여 부동산시장을 분석하였습니다. 3회차는 데이터, 지역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데이터로 지역의 생활 SOC 여건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일부이지만,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연구의 성과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자들도 그 어떠한 대가도 없지만 시간을 내어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진행한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2023년에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2022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하고 있는 정책자료 중 희귀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립국악원, 국토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통일부 등 6개 기관의 희귀자료 10,197책(점)을 디지털화하였다.

### 2016 ▶ ○ 3개관 | 90책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 2017 ▶ ○ 8개관 | 888책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노동위원회,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 3개관 | 3,570책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청

### 2019 ▶ ○ 11개관 | 14,837책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국립중앙극장,  
해외문화홍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민속박물관

### 2020 ▶ ○ 7개관 | 4,703책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외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 재외동포재단,  
한국은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1 ▶ ○ 9개관 | 3,573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보훈처, 국립현대미술관,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동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은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2 ▶ ○ 6개관 | 10,197책

국립국악원, 국토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통일부





## 디지털컬렉션 구축사업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소장자료 중 가치있고 독창적인 정책 자료를 큐레이션하여 디지털컬렉션으로 구축,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nl.go.kr)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컬렉션은 다음과 같다.

### 한국경제정책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240종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정책 관련 시대별·이슈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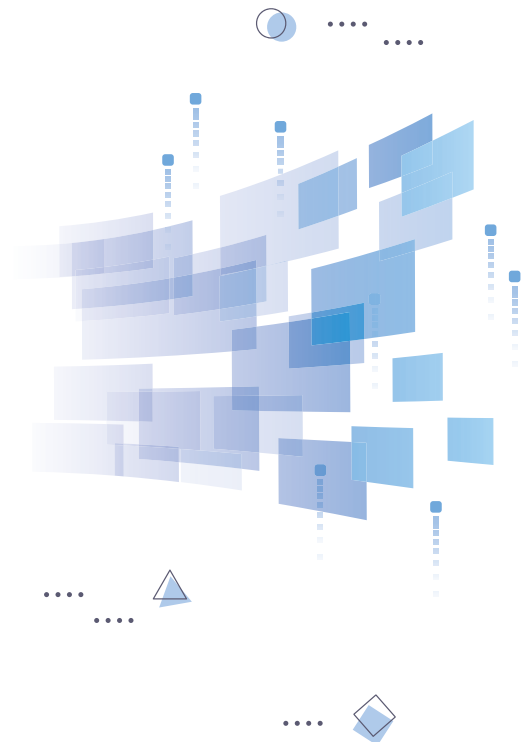
### 국토연구자료 | 국토연구원 / 54종

국토의 개발·계획의 역사와 과정, 정책 등 국토연구 관련 보고서



### 통일북한자료 | 통일연구원 / 100종

북한의 실상,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관측 등의 연구자료



디지털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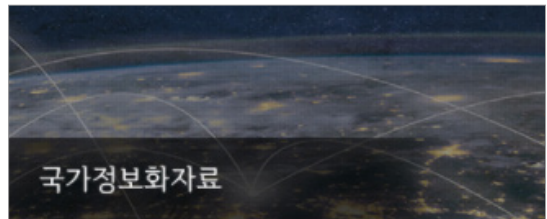
**세계 속의 한국문학** | 한국문학번역원 / 44종

한국문학 번역출간에 대한 현황과 한국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 소개



**국가정보화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39종

우리나라 정보화의 역사와 ICT 기반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자료



**이민정책연구자료** | IOM 이민정책연구원 / 40종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한민국 이민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성을 제시



**수출진흥과 한국경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0종

KOTRA 발간자료를 통해 수출과 함께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습 발견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미래** | 국민건강보험공단 / 45종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관리 연구 보고서 등의 콘텐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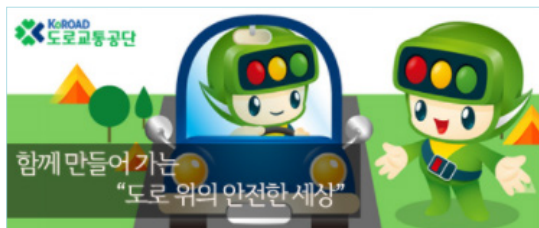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 컬렉션** | 재외동포재단 / 37종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을 재조명 하고, 재외동포사회가 구축한 소중한 문화 활동 소개



**함께 만들어가는 “도로 위의 안전한 세상”** | 도로교통공단 / 40종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연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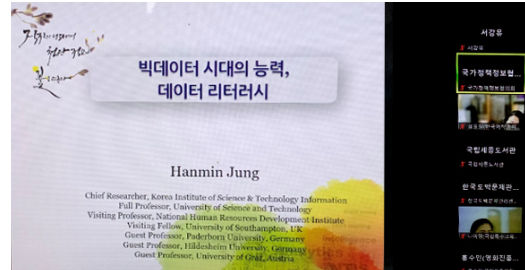
**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 | 한국고전번역원 / 50종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 문화, 사상의 결정체인 고전문헌 소개



## 담당자 워크숍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협의회 참여기관 확대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6일(수)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 연구기관의 도서관(자료실) 담당자 55명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으로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협력사업과 정책정보서비스, 공공공간행물 납본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정한민 교수가 “빅데이터시대의 능력, 데이터리터러시”라는 주제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환경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 일 시** 2022. 4. 6.(수), 14:00~17:00  
※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진행
- 참 석 자** 41개 기관, 55명
- 특별강연** 빅데이터시대의 능력, 데이터리터러시

##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2022년 10월 12(수)에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제1주제 연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소선 팀장)와 최신 정책정보 콘텐츠(건국대학교 노영희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책도서관 우수 사례발표(농림축산검역본부 심유정 주무관)가 진행되었다.



- 일 시** 2022. 10. 12.(수), 16:40~18:15
-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 5실(302호)
- 참 석 자**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 등 99명
- 발표내용**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성과발표
  - 새정부 국정과제 서비스 제공 방안
  - 정책도서관 최신 정보서비스 우수 사례

## 공동 학술세미나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2022년 6월 23일(목)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와의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문도서관 사서 등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도서관의 아카이빙 사례 및 이슈’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사례발표를 진행하였다. 협의회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책정보 콘텐츠 공동활용 방안’을 발표하여, 협의회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아카이빙 협력사업을 홍보하였다.



- 행 사 명** 2022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 학술세미나
- 일 시** 2022. 6. 23.(목), 10:00~17:00
- 장 소**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 참 석 자** 63개 기관, 138명
- 주요내용** 전문가 특강, 사례발표 등

## 04 회원기관 활동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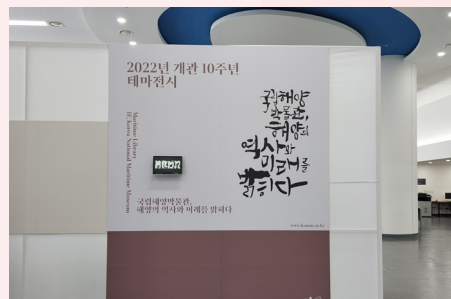
###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 개관 10주년 테마전시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의 역사와 미래를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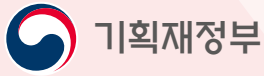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의 역사와 미래를 밝히다」를 2022년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운영하였다. 2012년 7월 9일 개관한 박물관이 국내 최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전시로 기획된 것이다.

전시는 박물관의 주요 성과기록물을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 유일이자 종합해양박물관으로의 운영 현황을 기공식 팸플릿, 박물관 준공 동판, 개관 안내 포스터 등 전시자료와 함께 알렸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추진된 전시 포스터, 발간도서, 홍보자료를 전시에 구성하여 박물관이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박물관을 대표하게 될 MI(Museum Identity)와 캐릭터(해바미, 타미)를 선보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최한 〈내가 꿈꾸는 국립해양박물관〉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공개하여,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준비해나가는 박물관의 미래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해양도서관은 200점이 넘는 성과기록물을 해양지식문화자원으로 활용하여 전시함으로써 5만 여권의 장서와 해양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라키비움으로서 이용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 일조했다.







## 기획재정부 도서관

사람과 책으로  
북적북적거리는  
북籍북積 도서관

기획재정부 도서관은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책과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세단장하였다.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약 5만권의 장서와 웹DB,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내 포털 도서관 서비스에 서평 게시판 운영 및 매월 사서 추천도서·신착도서를 안내한다.

직원들이 공모하여 선정된 '북籍북積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매년 도서를 주제로 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기획재정부를 대표하는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도서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2년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말 크리스마스 기간에 도서 기증 및 교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풍선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설치하였고, 직원들은 캐롤을 들으며 동료들과 포토존에서 즉석카메라 사진도 찍고 커피를 마시며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도서를 기증한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원하는 도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제작한 '북籍북積' 책갈피를 함께 배포하였다. 특히 기증 도서 중 일부는 도서관 내 오·훤슨 도서를 교체하는 데 사용되어 직원들이 좋은 상태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도서관은 지속적인 도서관 환경 개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북 콘서트 개최 등의 다채로운 도서 행사를 기획하여 직원들의 독서문화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북籍북積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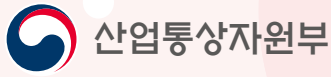


〈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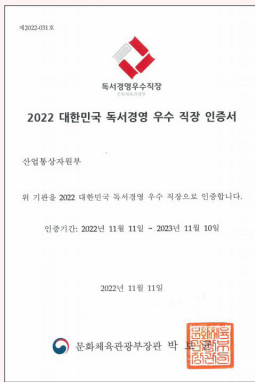
〈도서 기증 및 교환행사〉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정보도서관

### 독서를 통한 업무역량 향상 MOTIE 북클럽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정보도서관(운영지원과 서무복지팀 소속)은 정부 정책업무 종사자들의 지식관리를 통한 역량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인 2015년부터 MOTIE북클럽, 독서통신교육, MOTIE북콘서트 등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특히 MOTIE북클럽은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문화적 소양을 향상하는 중요한 행사로 매월 시행하면서 상시학습시간(10h)도 부여하고 있어서 부처내에서 점점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토론회로서 1년 4회에 한해 원하는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MOTIE북클럽이 업무혁신 추진방안 중 한분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2022년도는 기억할 만한 해가 되었던 점이 몇가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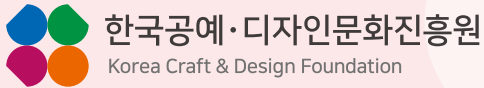
첫째, 신규로 MOTIE소규모북클럽을 운영하게 된 점이다. MOTIE북클럽은 전체직원 대상으로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많은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소규모북클럽을 기획하였다. 세분화된 여러 팀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모든 직원이 실국별로 팀을 구성하여 북클럽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도서관의 선정된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용은 주제도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실국별, 주제별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특화 전문주제별 독서토론회이므로 각 실국과 별 업무개발에 도움을 준다.

둘째, MOTIE북클럽이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영의 모범적인 행사로 인증 받아 '2022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서'(문화체육관광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전체 부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MOTIE북클럽은 물론이고, 새롭게 기획하게 된 MOTIE소규모 북클럽 등의 수행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MOTIE북클럽은 2015년 이래 약 83회(4,265명 참여, 비대면 포함) 개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북클럽 위원회를 위촉하여 보다 활성화하였다. 참여자로서 사무관 이상 서기관급은 물론 실국과장 등의 참여도 활발하여 정책업무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현재도 북클럽에 왕성히 참여하는 개개 직원들은 각과에서 단탄한 독서로 단련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일반기업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독서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바 인사고과에도 독서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2022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서' 수상식을 참관하면서 소개된 여러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부부처에서는 아직 독서경영을 인사고과에 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예산 등 당면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업무 종사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분야는 물론 인문분야 등 다방면의 독서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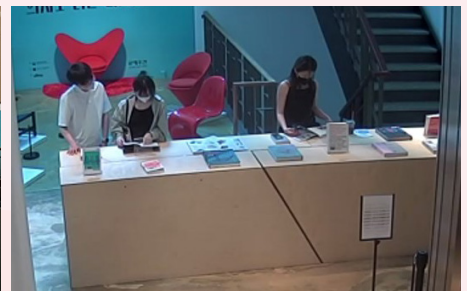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실

### 2022년 공예주간 기념 도서전시 의자로 읽는 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실은 2022년 공예주간을 맞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서전시 「의자로 읽는 디자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2022년 공예주간 슬로건 ‘우리집으로 가자’에 맞추어, 의자를 주제로 관련 도서들과 디자인 의자 15점이 함께 전시되었다. 전시를 통해 가장 사적 이면서 실내 생활에 밀접한 가구인 의자의 디자인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직접 디자이너들의 의자에 앉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의자의 세계』, 『의자의 재발견』 등의 저서를 집필한 김상규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의 전문가 강연도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시 기간 내에 관련 디자인 영화들을 상영하였다. 특히 세계적 가구 브랜드인 스위스 Vitra사의 협력으로 의자의 역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Chair times: a history of seating – from 1800 to today』가 국내 최초로 한글로 상영되었으며 그 외 ‘디터 람스’ 등 디자인 영화들이 함께 상영되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한 가구인 의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디자인의 흐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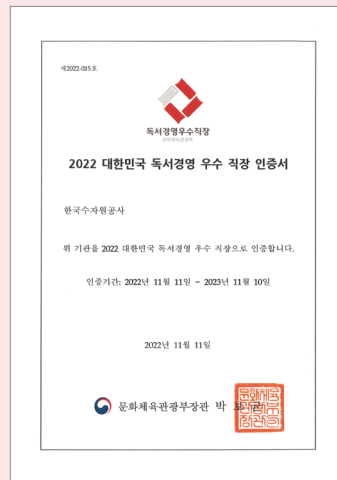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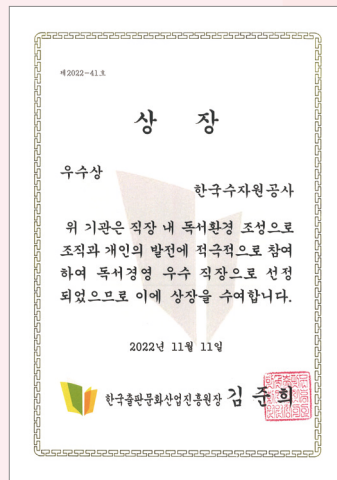




## 한국수자원공사 정보문화센터

### 2022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우수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정보문화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2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에 응모하여 인증 획득과 더불어 154개 기관 및 기업과 경합을 벌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경영 업적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운영 및 관리, 독서 프로그램, 독서경영 홍보, 지역사회 나눔 등 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표 제출을 시작으로 현장확인, 1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2차 서류심사, 최종심사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룬 쾌거로 독서 경영 기업 도약을 위한 수준 입증 및 대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

### 보사연 주제분류체계 국영문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에서는 2022년 기관 연구성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자체 주제분류체계를 국영문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주제분류체계는 기관 내 연구성과 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1차로 연구과제 분류에 활용하고 이를 연계하여 성과물 리포지터리 시스템인 Research@KIHASA와 연구자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 성과물의 주제별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분류체계는 분류전문가와 내부 연구자의 자문으로 학문분류가 아닌 성과물 분류를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대분류 5개와 31개의 중분류로 개발되었다. 현재 1990년 이후 연구보고서와 수탁과제 일부를 소급하여 분류하였고 이후 모든 성과물을 분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분류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주제별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연구자의 연구분야도 통제된 분류로 제공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기관의 주제분류체계 개발사업은 도서관에서 기관 고유의 주제분류체계를 개발했다는 점 외에도 기관의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하는 전사적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제명: [검색창]  
과제구분: 전체  
과제상태: 전체  
연구기간: YYYY ~ YYYY  
연구분류: 전체 (대분류를 먼저 선택하세요)  
다운로드

KIHASA Open Access Repository  
**Research@KIHASA**  
SEARCH RESEARCH@KIHASA

Recommend: Covid19 | countable income | pilot project | Operation plan

What's New?  
Evidence Based Social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dministrative...  
Lee, Hyonjoo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11-21, 보건복지 Issue & Focus 431호, pp.1-12

Quick menu

KIHASA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Health care	Income protection	Social service	Population and family
	150	65	68	59	43

<리포지터리 시스템(<http://repository.kihasa.re.kr>) 적용 화면>

## 05 숫자로 보는 정책정보서비스

2022년 12월 31일 기준

### 1. 정책 전문정보

- 정책정보포털 POINT
- G-Zone(지존)
-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정책정보포털POINT

2014년~

온라인 정책보고서, 학술자료, 웹사이트,  
협력기관 소장자료 등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2014년~

구독 학술지  
**15,000여 종**  
가입자수  
**21,755명**



**1,631,905건**

**284,176,140건**

정책정보종합목록



2014년~ 참여기관 **260개관**

**1,684,585건**

### 2. 상호협력

- 정책정보종합목록
- 상호대차 서비스
- 정책발간물 전시서가

정책발간물 전시서가

2014년~

참여기관 **15개관**



**8,381책**

정책자료 이용

2013년~

대출자 648,839명



1,349,969책

### 3. 연구지원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 정책정보도우미
- 국외학술전자책 원스톱

국외학술전자책 원스톱

2016년~

대출자 394명



675책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2014년~

693회 31,805명

31,805명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2015년~

강연 92개관  
순회대출 128개관

### 4. 교육·독서지원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 정부부처 독서동아리 지원



**4** 차 산업혁명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래의 정보 흐름과 국민의 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정책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세종도서관  
은 국내외 최신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  
고,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3,600책

## 참여기관 소감



국토연구원 도서관은 감사하게도 2022년도 기관순회 대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한해동안 4차에 걸쳐 교양도서 기관순회대출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교양도서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도서관에 전문서적 밖에 없어 직원들이 기관순회대출서비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2021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아쉬워 했었기에, 2022년도의 서비스가 직원들에게 더 환호를 받았습니다. 순회대출서비스는 신간 베스트 및 스테디셀러 등 교양 도서를 2~3개월씩 기관에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3개월씩 1년에 4번에 걸쳐 책이 바뀌며, 한 번에 200책에서 250책 정도가 옵니다.

기관순회대출로 오는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도서도 있고, 신간도 있기에 무엇보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도서관의 소장자료보다 기관순회대출 대출건수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도서관에서 한번도 마주친 적 없었던 직원을 기관순회대출 덕분에 도서관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직원 뿐만 아니라 담당자로서도 신간도서와 교양도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입신청을 해도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기관순회대출 서비스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순회대출서비스 좋다는 말과 책 또 언제 오냐는 문의를 받았을 때, 도서관 담당자로서 너무 좋습니다. 기관순회대출서비스는 점차 확대되어 더 많은 기관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기획해주신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실은 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해 동안 원내 직원들에게 신간 기관순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원 특성상 기본 과제에 편성된 연구자료 구입비는 과제에 필요한 학술자료 입수가 절대적이어서, 공공도서관과 같은 교양도서 신간 입수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 근무 상황이 늘어나고 제공되는 자료의 성격도 90% 이상 학술 전자정보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자료실 직접 방문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기관순회대출 서비스는 자료실 방문 및 자료 이용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제공된 신간 250여 권을 자료실 입구 대출/반납대 앞쪽에 배치하여 자료실에 오는 분들이

한눈에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우연히 오셨다가 좋은 책이 많다면 즐겨읽히시며 대출해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빌려가시는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분기별 신간이 도착할때마다 자료실 소식지를 통해 신간 목록을 안내하고 이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369책의 대출 이용이 있었으며, 대출기간 엄수 및 분실 자료 없음으로 한해의 서비스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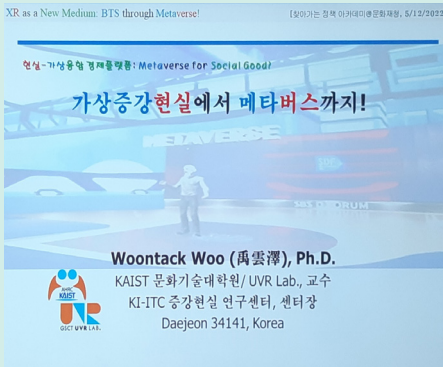
이번 순회대출서비스는 원내 이용자분들이 유난히 즐겨읽히시고 뿌듯해 하시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한해였습니다. 이용자 반응이 너무 좋아 이렇게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문화재청 자료실은 정책정보서비스의 하나인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미술, 영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연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식 체험기

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운영기관 의사를 반영한 강사 섭외와 정책정보서비스 소개 영상, 홍보자료, 기념품 지원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교육 만족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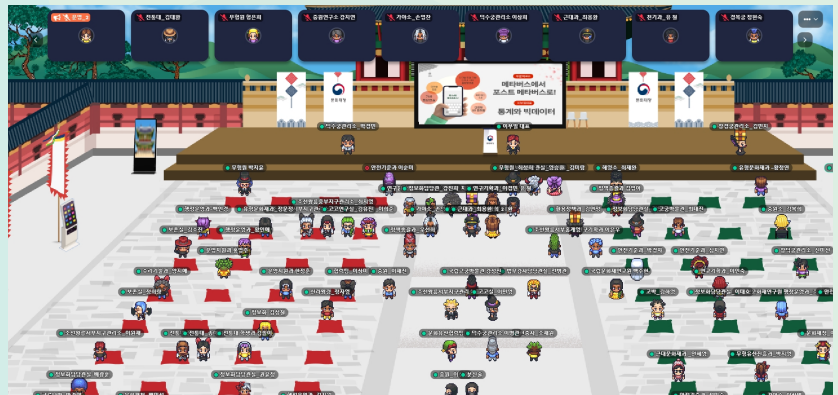
<메타버스의 이해> 강의 참석



정책정보서비스 홍보



<메타버스의 이해> 강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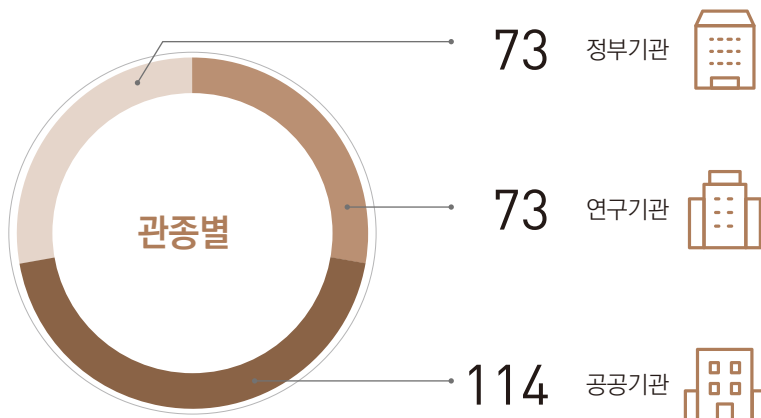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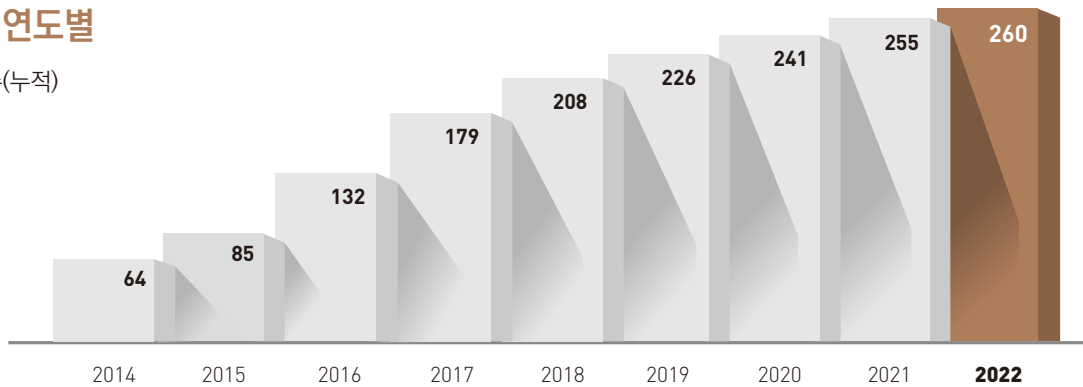
강의 관련 퀴즈 참여



## 06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 가입연도별

기관수(누적)



### 2022년 신규 가입기관 (7개관)



## 지역별

## [서울] 71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인지방통계청(나라셀)  
경찰청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외교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항공도서관  
국방부  
국악방송  
국립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근로복지공단  
농업정책보급금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외교부  
유해발굴감식단  
육아정책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통일부  
통일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포츠포럼정책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은행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행정연구원  
해양환경공단

## [경기도] 23개 기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OM 이민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국립암센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한경인재개발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지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강원도] 9개 기관

강원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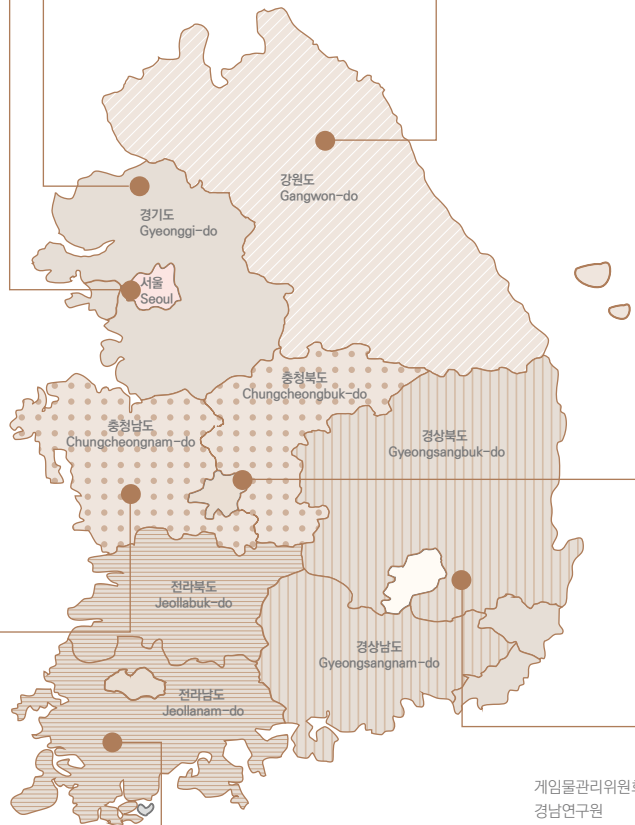
## [세종] 35개 기관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국토연구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축산물품질거래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인문화홍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 [충청도] 52개 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기술표준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생태원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재청  
산림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정보통신기획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질병관리청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통계교육원  
통계청  
특허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전라도] 21개 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전남연구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전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대전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턴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경찰교육원

## [제주도] 6개 기관

(재)국제평화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제주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경상도] 43개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남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수안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도안전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울산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뇌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주책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한복진흥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 소식지〉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 및 편집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 국립세종도서관

☎ 044-900-9062 ✉ [napi@korea.kr](mailto:napi@korea.kr) 🏠 <http://napi.nl.go.kr>